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양식과 사회관계망

Attachment Styles and Social Networks of Mothers of School Children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유계숙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Gye-sook Yoo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및 해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ttachment styles on the size and the level of functions of social networks. 270 mothers of school children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and were classified into secure, avoidant, and anxious attachment groups. Findings indicated that three continuous attachment indexes, security, avoidance, anxiousness, and the size and the level of functions of social networks were not affected by mother's age,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status. However significant attachment style effects were obtained for the size and the level of functions of social networks. Secure subjects perceived their husbands closer and more important, and listed more nonkin members in their networks than anxious subjects. Also secure people perceived receiving more assistance from network members including household tasks, money, information, and advice. Secure and anxious subjects reported more emotional support from networks than avoidant people.

I.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의 제기

인간은 생애 초기에 스트레스를 겪거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주양육자와 근접성을 유지하는 애착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도모한다. 주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어린이가 세상을 탐색하고, 발견하며, 상호작용 하는 데 있어서 지지 기반의 역할을 한다(Ainsworth, 1973). 반면 주양육

자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신뢰감과 기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이후의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이와 같은 생애 초기의 애착관계는 성인기의 개인이 맺고있는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과 기능적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다(Kahn & Antonucci, 1980). 즉 사회관계망은 심리적, 물리적으로 다양한 지원(social support)을 제공하면서 그 사람의 인적 자원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지에도 기여한다.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은 자신이 주위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유용한 인간임을 느끼게 하는 근원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는 등(유지영·김명자, 1996; Alcalay, 1983)의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의 기능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간섭이나 통제와 같이 개인에게 스트레스와 부담을 유발하는 부정적 기능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애착과 사회관계망은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라는 점에서 두 개념을 연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더구나 초기의 애착양식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최근의 연구들(George, Kaplan, & Main, 1984; Shaver & Hazan, 1988; Simpson, 1990)을 고려한다면,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양식이 성인기의 사회관계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를 다룬 연구들 중 애착양식과 사회관계망을 관련시킨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족 생활에서 '친족관계 유지자(kinkeepers)'의 역할(Oliveri & Reiss, 1987)을 하는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혼 여성이 가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가족의 모든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Cochran & Brassard, 1979). 최근 국내에서도 기혼 여성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의 지원 및 긍정적 효과(강

성희·김주희, 1996; 김경원, 1988; 유지영·김명자, 1996; 이동원, 1984; 최덕신, 1993)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 이외의 간섭이나 통제와 같은 부정적 기능을 살펴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이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기능을 파악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사회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하기보다는 사회관계망의 부정적인 기능도 함께 다룸으로써 사회관계망을 사회적 지원과 구분하여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역할 부담이 매우 크고 사회관계망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학동기에 해당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애착성향과 사회관계망의 크기 및 기능 수행 정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기능 수행 정도를 애착양식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성인기의 애착양식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양식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정교화되고,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지나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개인이 갖고있는 내적 표상 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은 초기의 애착양식을 성인기까지 지속시키는 매개체로서 성인기에 갖는 자존감이나 사회적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의 애정관계를 이해하는 틀로서 애착이론을 적용시킴으로써 초기 애착관계가 성인기의 애정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Ainsworth 등(1978)이 제시한 세 가지 애착양식을 성인기의 애정관계에 적용시켜 연구한 결과, 애착양식에 따라서 사랑의 양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는 친밀하고 지지적인 애정을 경험하며, 회피형의 소유자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불안형의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집착하며, 정서불안을 나타내고, 육체적으로 매혹되거나, 상대와 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애정

경험을 나타냈다. 한편 성인기 애착양식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의 세 가지 애착양식이 어떠한 특성과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들(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 신뢰감, 친밀감, 만족감, 헌신적 태도 등은 안정형의 특징을 나타냈고, 회피형은 안정형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며, 불안형은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의존성이 적절한 수준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성인기의 애착관계에서 안정성이 높으면 불안성은 다소 낮고 회피성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불안성과 회피성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관계망의 구조와 기능

학자들에 따라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이란 개인을 중심으로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간의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Cochran, 1993). 사회관계망의 특성은 대체로 구조와 기능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관계망에 속한 사람의 수와 관계의 범주(가족, 친척, 친구 등)를 일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관계의 범주는 정서적 지원을 주로 하는 일차적 관계(배우자, 가족성원, 친척, 친한 친구 등)와 물질적 도움이나 정보제공을 주로 하는 이차적 관계(직장 동료, 사회단체의 성원 등)로 구분된다. 이 밖에도 관계망 구성원과의 접촉 빈도, 밀도 등 다양한 측면이 관계망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한편 사회관계망의 기능적인 측면은 관계망을 구성하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활동에 의하여 정의된다. 사회관계망의 주요 기능은 개인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을 제공하는 것인데, 사회적 지원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은 사적인 감정과 관심사를 표현하며 비직시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 공감, 격려, 신뢰, 인정, 애정, 친밀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물질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으로서 금전이나 구체적인 물건의 형태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인 도움은 서비스의 측면에서 신체적인 과업을 분담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일상적 또는 집안의 경조사시 일손 도움 등이 포함된다. 정보적 지원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돕는 것으로 충고나 지침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활동적 지원은 사회적 참여와 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쇼핑, 외식, 경조사시의 상호방문, 휴가나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다(원효중, 1997). 사회관계망의 기능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관계망의 기능 중 사회적 지원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Kahn과 Antonucci(1980)는 개인의 생애에서 가족이나 친지 등과 맺는 관계망을 'convoy'라 명명하고, 이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을 애정, 인정, 도움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의 기능에는 긍정적 측면의 지원 이외에 관계망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섭이나 통제로 인하여 갈등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사회관계망이 스트레스나 부담을 주는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Belle, 1982; Wellman, 1981)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친족의 지지는 개인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요구적이거나 과보호적인 경우도 있다(Antonucci & Akiyama, 199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의 기능을 긍정적 기능 이외에 부정적 기능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

개인연령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기능 수행 정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성인초기부터 중년기까지, 특히 3,40대의 자녀교육기에는 친족이나 친구와의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축소되며, 관계망의 크기도 감소한다는 주장(김경원, 1989; 전미경, 1992; Farrell & Rosenberg, 1981)이 있는 반면, 사회관계망의 크기나 지원 정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은혜·

이미리, 1996; 이은혜, 1997; Antonucci, 1991; Antonucci & Akiyama, 1987; Levitt, Weber, & Guacci, 1993). 한편 우리 나라 기혼 여성의 친족관계망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친정 식구들로부터 받는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는 증가하는 반면, 시댁 식구의 기능 수행 정도는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원, 1989; 이동원 1984).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의 기능 수행 정도는 증가하는 반면(최태신, 1993), 이웃관계망의 기능 수행 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강성희 · 김주희, 1996).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기능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취업모는 전업주부에 비해 친정부모, 시부모, 자신이나 남편의 형제 및 친척 등 주로 친족원으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반면, 관계망 성원과의 갈등이나 통제는 전업주부에 비해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제공 및 자녀를 직접 돌보아주는 도움 기능이나 사회관계망의 크기에서는 연구에 따라 다르나 취업모와 비취업모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이경미, 1993; 이은혜, 1997; 이은혜 · 이미리,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각각 연구대상의 성격(예, 사회계층, 가족생활주기 등)이나 연구에 포함시킨 관계 및 기능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대상 및 설계를 동질화한 후속 연구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성인기의 애착양식과 사회관계망

성인기 애착의 내적 표상 모델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Kobak & Sceery, 1988)에 따르면, 애착양식이 안정형인 성인은 대인관계에서 신뢰감과 자신감이 높았으며, 애정관계에서 보다 표현적이고 성공적인 반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보다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며 불신감을 가지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형의 소유자는 자신에 대해서 보다 부

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자신감도 낮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애착경험은 성인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이성간의 애정관계 및 직장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강진경 · 최혜경, 1996; 유은희 · 박성연, 1989), 안정적인 애착양식을 소유한 성인이 대인관계의 질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유계숙 · 이은혜, 1998). 따라서 성인기의 애착양식은 사회관계망과 같이 개인이 맺고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Kahn & Antonucci, 1980; Antonucci, 1991). 그러나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를 다룬 연구들 중 애착양식과 사회관계망을 관련시킨 연구는 극히 드물다. Kobak과 Sceery(1988)가 5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양식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정서적 지지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애착양식이 회피형인 사람은 안정형이나 불안형인 사람에 비하여 가족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를 더 낮게 보고한 반면, 친구들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도에서는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Kobak과 Sceery(1988)의 연구는 사회관계망의 여러 기능 중 정서적 지원만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성인의 애착양식에 따라서 그 밖의 기능 수행 수준이나 사회관계망의 구조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1.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성향과 사회관계망의 크기 및 기능 수행 정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의 기능 수행 정도는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과 강북소재 4개 초등학교

의 1학년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 중 초혼을 유지하며,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70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을 초혼이며, 첫 자녀가 초등학교인 경우(가족생활주기가 자녀학동기인 경우)로 제한한 이유는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인 애착양식과 사회관계망에 대하여 어머니의 결혼지위나 가족생활주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본 연구의 대상은 30대 주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나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나타났듯이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270)

변 인	평균(표준편차) 또는 빈도(%)
연령(세)	35.03(2.97)
20대	10(3.7)
30대	242(89.6)
40대	18(6.7)
교육 수준(명, %)	
중졸이하	17(6.3)
고 졸	125(46.3)
대졸이상	128(47.4)
취업 여부(명, %)	
비취업	191(70.7)
취 업	79(29.3)
결혼지속 기간(년)	9.86(2.09)
총 자녀수(명)	2.00(0.46)
첫 자녀 연령(세)	8.39(1.90)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280.35(159.38)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87)의 범주형 단일 문항에 기초하여 성인의 애착양식을 세분화한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성인애착척도는 성인이 애착관계에서 나

타내는 세 가지 애착성향, 즉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각 6문항)의 정도를 측정하는 18개의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애착성향(안정성, 회피성, 불안성) 각각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0, .60, .57$ 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는 Levitt, Weber와 Clark(1986), 이은혜·이미리(1996) 등의 선행 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사회관계망의 구조(관계망 구성원의 종류와 크기)와 기능 수행을 측정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네 가지 범주는 남편, 친정, 시댁, 비친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친정에는 어머니, 아버지, 여형제, 남형제, 기타 친정 식구(형부, 율케 등)가 포함된다. 시댁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여형제(시누이), 시댁 남형제(시아주버니, 시동생), 기타 시댁 식구(동서, 시누 남편 등)가 포함된다. 또한 비친족에는 친구(학교 친구, 직장동료 등), 자녀친구의 어머니, 남편친구의 부인, 이웃, 기타 성원(교사, 가사관리인, 각종 모임의 회원, 성직자 등)이 포함된다. 이상 16 종류의 관계망 구성원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관계라고 대답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자료처리 하였다. 친정, 시댁, 비친족의 세 가지 범주 각각에서 가능한 관계망 크기의 범위가 0-5이므로 기혼 여성이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남편을 포함하여 총 1-16명의 범위를 가진다. 한편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은 정서적 지지(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아껴줌), 신체·물질적 도움(가사 및 육아 등 일손 도움, 경제적 지원), 간섭과 통제(반대나 간섭 및 과도한 요구), 정보교환과 충고(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조언을 해줌)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각 기능의 수행이나 제공 정도를 0(전혀 그렇지 않다) - 1(그렇다) - 2(정말 그렇다)의 범위 내에서 응답하도록 작성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애착성향 점수와 사회관계망의 크기 및 네 가지 기능 점수 각각을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여부에 따라 일원변량분석이나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3을 위해서는 세 가지 애착성향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애착양식으로 결정한 후, 애착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네 가지 기능 수행 점수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Kruskal-Wallis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애착성향과 사회관계망의 크기 및 기능 수행 정도의 차이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성향과 이들이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크기 및 기능 수행 정도가 사

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 애착성향 점수와 사회관계망의 크기 및 네 가지 기능 수행 점수 각각을 연령, 교육 수준, 취업 여부에 따라 일원변량분석이나 t-검증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성향은 20대가 3, 40대보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거나 취업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애착성향을 지니는 경향이 있으나, 연령이나 교육 수준, 또는 취업 여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편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가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기능 수행 수준에 있어서도 3, 40대가 20대보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이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회관계망의 크기도 크고, 기능 수행 정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 역시의 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위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성향과 그들이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기능 수행 정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애착성향의 차이

(N=270)

사회인구학적 특징		애착성향	안정성 평균(표준편차)	회피성 평균(표준편차)	불안성 평균(표준편차)
연령	20대		21.30(2.71)	15.30(4.00)	15.10(4.91)
	30대		19.68(3.34)	16.45(3.32)	14.19(2.98)
	40대		19.88(3.67)	18.00(4.47)	14.39(2.57)
	F		1.15	2.26	0.46
교육 수준	중졸이하		18.80(3.03)	15.47(3.02)	14.27(3.01)
	고졸		19.69(3.34)	16.55(3.66)	14.39(3.31)
	대졸이상		19.91(3.38)	16.61(3.28)	14.19(2.78)
	F		0.76	0.75	0.25
취업 여부	비취업		19.52(3.58)	16.58(3.60)	14.22(3.24)
	취업		20.10(3.08)	16.49(3.22)	14.24(2.67)
	t		-1.27	0.20	-0.06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크기 및 기능 수행 정도의 차이

(N=270)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기능		사회관계망의 크기 평균(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평균(표준편차)	신체·물질적 도움 평균(표준편차)	정보교환과 충고 평균(표준편차)	간섭과 통제 평균(표준편차)
사회인구학적 특징						
연령	20대	4.95(3.01)	7.44(5.13)	6.33(4.61)	6.44(4.88)	5.00(4.28)
	30대	6.19(3.14)	9.83(5.19)	7.29(4.28)	7.93(4.90)	5.93(3.96)
	40대	6.42(3.44)	9.69(6.15)	7.07(4.32)	8.28(6.02)	5.75(4.74)
	F	0.81	0.89	0.23	0.43	0.21
교육 수준	중졸이하	5.79(3.05)	7.76(5.14)	5.47(3.87)	5.83(4.22)	5.39(3.50)
	고졸	6.42(3.43)	10.10(5.85)	7.25(4.64)	7.90(5.50)	6.13(4.54)
	대졸이상	5.93(2.86)	9.65(4.57)	7.46(3.91)	8.16(4.44)	5.72(3.49)
	F	0.88	1.51	1.54	1.47	0.40
취업 여부	비취업	6.20(3.28)	9.82(5.51)	7.33(4.45)	8.06(5.22)	6.10(4.15)
	취업	5.94(2.86)	9.51(4.56)	6.99(3.79)	7.49(4.25)	5.35(3.57)
	t	0.67	0.48	0.57	0.80	1.27

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분석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집단의 구분 없이 270명의 연구대상을 통합하여 개인의 애착양식을 분류하였다. 애착양식을 분류하기 위하여 안정성, 회피성, 불안성의 세 가지 애착성향 점수 중 가장 높은 성향을 개인의 애착양식으로 결정하는 것과 애착성향 점수들을 단계별 중판별 분석하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애착양식별 구성비율을 비교하였더니 두 방법의 결과가 99.39%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애착양식 분류 결과가 거의 같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대 애착성향 점수만으로 개인의 애착양식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 270명 중 223명의 애착양식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의 애착양식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안정형은 159명(71.3%)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피형은 57명(25.6%), 그리고 불안형은 7명(3.1%)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크기의 차이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양식을 분류한 결과 세 가지 애착양식 집단의 사례수가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과 관련된 변인들에서 집단간 동변량성 검증(Levene Test for Homogeneity of Variances)을 한 결과 세 집단의 동변량성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문제2와 3은 비모수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크기를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 관계망의 범주별로 Kruskal-Wallis One-Way ANOVA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총 크기는 안정형의 소유자가 6.28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회피형이 5.64명, 불안형이 3.93명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편 관계망의 범주별 크기를 살펴보면, 애착양식이 안정형인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보

〈표 4〉 애착양식에 따른 사회관계망 크기의 차이

애착양식 관계망의 크기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χ^2
	평균(평균순위)	평균(평균순위)	평균(평균순위)	
남 편	0.95 _a (113.89)	0.93 _a (111.68)	0.57 _b (71.71)	15.23***
친정식구	2.57 (116.10)	2.39 (103.89)	1.86 (84.86)	2.98
시댁식구	1.19 (113.50)	1.14 (111.08)	0.71 (85.43)	1.40
비친족	1.57 _a (117.95)	1.18 _{ab} (99.98)	0.79 _b (74.71)	5.85*
총관계망 크기	6.28 (117.20)	5.64 (102.84)	3.93 (68.43)	5.40

* $p < .05$ *** $p < .001$ 주 : 각 행의 서로 다른 문자는 Duncan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나타냄.

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있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남편과의 관계나 비친족원과의 관계에서는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애착양식에 따라서 관계망의 크기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애착양식이 안정형이나 회피형인 사람은 불안형인 사람에 비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자신의 삶에서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5.23$, $p < .001$), 친구나 이웃 등 비친족원과 맺고있는 관계망의 크기는 안정형이 1.57명, 회피형이 1.18명, 불안형이 0.79명으로 애착양식이 안정형인 사람이 불안형보다 평균 0.78명 더 많은 비친족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85$, $p < .05$). 그러나 친정식구나 시댁식구 등 친족들과의 관계에서는 애착양식에 따른 관계망의 크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3.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기능 수행 정도의 차이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기능 수행 정도가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정서적 지지, 신체·물질적 도움, 정보교환과 충고, 간섭과 통제 네 가지 기능 수행 점수 각각을 Kruskal-Wallis One-Way ANOVA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세 가지 지원 기능(정서적 지

지, 신체·물질적 도움, 정보교환과 충고) 수준은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애착양식이 안정형이나 불안형인 사람은 회피형에 비하여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0.81$, $p < .01$), 신체·물질적 도움($\chi^2=8.97$, $p < .05$)과 정보교환 및 충고 기능($\chi^2=7.80$, $p < .05$)에서는 안정형의 소유자가 회피형이나 불안형보다 관계망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인 간섭과 통제의 수준은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맺고있는 사회관계망의 기능 수행 정도를 관계망의 범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편이나 친정식구의 기능 수행 수준이 시댁식구나 비친족원의 기능 수행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편이나 친정식구의 기능 수행 정도는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안정형의 소유자는 회피형과 불안형에 비하여, 그리고 회피형의 소유자는 불안형에 비하여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1.83$, $p < .001$), 남편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충고를 얻는 수준도 안정형의 소유자가 회피형이나 불안형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8.47$, $p < .05$). 또한 친정식구와의 관계에서도 안정형의 소유자가 회피형이나 불안형에 비하여 신체적, 물질적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표 5〉 애착양식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기능 수행 정도의 차이

(N=223)

관계망의 기능		애착양식	안정형 평균(평균순위)	회피형 평균(평균순위)	불안형 평균(평균순위)	x ²
정서적 지지	남 편		1.70 _a (121.00)	1.33 _b (91.49)	1.00 _c (74.57)	11.83***
	친정식구		1.62 (116.26)	1.56 (103.26)	1.21 (86.29)	3.49
	시댁식구		0.92 (115.31)	0.77 (104.80)	0.67 (95.50)	1.78
	비친족		1.20 (117.41)	0.92 (97.40)	1.00 (108.00)	4.35
	전 체		5.61 _a (116.18)	4.67 _b (84.58)	5.43 _c (118.40)	10.81**
신체·물질적 도움	남 편		1.63 (115.27)	1.53 (107.44)	1.00 (74.86)	4.72
	친정식구		1.24 _a (119.42)	0.98 _b (95.11)	0.86 _b (81.00)	8.00*
	시댁식구		0.70 (117.16)	0.49 (100.63)	0.29 (87.43)	4.69
	비친족		0.78 (114.95)	0.70 (107.36)	0.43 (82.86)	2.30
	전 체		4.68 _a (111.06)	3.97 _b (85.82)	3.60 _b (67.20)	8.97*
정보교환과 충고	남 편		1.50 _a (118.84)	1.19 _b (96.87)	0.86 _b (79.86)	8.47*
	친정식구		1.18 (116.71)	1.01 (100.29)	1.00 (100.43)	3.10
	시댁식구		0.72 (116.27)	0.55 (102.05)	0.43 (96.00)	2.97
	비친족		1.14 (116.70)	0.97 (103.63)	0.57 (73.29)	4.60
	전 체		4.93 _a (109.17)	4.08 _b (83.83)	4.00 _b (81.70)	7.80*
간섭과 통제	남 편		1.25 (115.48)	1.12 (106.37)	0.71 (78.86)	3.17
	친정식구		0.94 (115.66)	0.79 (103.89)	0.71 (94.93)	2.08
	시댁식구		0.66 (115.77)	0.51 (104.41)	0.29 (88.07)	2.83
	비친족		0.50 (112.70)	0.49 (109.58)	0.57 (115.86)	0.16
	전 체		3.83 (101.50)	3.39 (85.86)	3.20 (81.20)	3.31

* p < .05 ** p < .01 *** p < .001

주 : 각 행의 서로 다른 문자는 Duncan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나타냄.

나타났다(x²=8.00, p < .05). 그러나 시댁식구나 비친족원과의 관계에서는 관계망 성원들의 기능 수행 정도가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동기 자녀를 둔 27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애착성향과 사회관계망의 크기 및 기능 수행 정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어머니가 맺고있는 사회

관계망의 크기와 기능 수행 수준을 애착양식별로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성향 및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기능 수행 정도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 수준 및 취업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관계망의 크기나 지원 정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이은혜·이미리, 1996; 이은혜, 1997; Antonucci, 1991; Antonucci & Akiyama, 1987; Levitt, Weber, & Guacci, 1993)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가족생활주

기가 자녀학동기일 경우, 기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타인과의 애착이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대다수가 고졸 이상의 30대 전업주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편중이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애착성향이 안정적이며, 사회관계망의 크기도 크고, 기능 수행 수준도 높은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한 Fischer(1982)의 연구결과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관계망의 크기도 크고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징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대체로 안정형의 소유자가 모든 관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있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남편이나 비친족원과의 관계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안정형이나 회피형인 사람은 불안형에 비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지각하였으며, 안정형이 불안형보다 더 많은 친구나 이웃 등 비친족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기의 애착양식이 안정적일수록 부부관계나 대인관계의 질도 높다는 내적 표상 모델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Kobak & Sceery, 1988)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즉 애착양식이 안정형인 기혼 여성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이 높은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갖고있기 때문에 더욱 표현적이며, 친밀하고 지지적인 부부관계를 경험함으로써 남편을 친밀하고 중요한 인물로 지각하며, 보다 큰 비친족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 불안형인 여성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서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며, 이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배우자나 관계망 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축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애착양식이 불안형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낮은 신뢰감을 보임으로써 파트너의 상호의존성이나 몰입의 수준을 감소시키며(Simpson, 1990), 특히 불안형인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게 보이는 소유욕은 관계에 대한 파트너의 만족과 부적 상관관이 있다(Davis & Oathout, 1987)는 선행연구 결과들 역시 불안형 소유자의 관계망 크기가 작은 이유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준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친족관계망의 크기는 애착양식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기 및 학동기에 해당하는 기혼 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친정 및 시댁식구들과 교류하고 있을 정도로 친족관계망이 보편적이고 주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서 사회관계망의 지원 기능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즉 안정형이나 불안형인 사람이 회피형에 비하여 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으며, 신체·물질적 도움이나 정보교환 및 충고와 같은 실질적 지원은 안정형의 소유자가 회피형이나 불안형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관계망의 간섭과 통제 수준은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회피형의 소유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의존하거나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안정형이나 불안형과 달리 타인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관계망으로부터의 실질적 도움에 비하여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 지원 수준이 특히 낮을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Kobak과 Sceery(1988)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한편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서 관계망의 범주별 기능 수행 정도도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안정형의 소유자는 회피형과 불안형에 비하여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며, 정보를 교환하거나 충고를 얻는 수준도 높고, 친정식구들로부터 신체적, 물질적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댁식구나 비친족원과의 관계에서는 관계망 성원들의 기능 수행 정도가 어머니의 애착양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 나라 자녀양육기 가족의 어머니들을 지

원하는 사회관계망은 혈연관계가 비혈연 관계보다 우세하며(원효종, 1997), 관계망을 구성하는 주요 성원으로 남편, 친정 어머니, 친정 자매 등이 거론된다(이은혜·이미리, 1996)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애착양식에 따른 관계망의 기능 수행 수준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교류가 소원한 시댁식구나 비친족 원보다는 남편이나 친정식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살펴보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동기 자녀를 둔 중산층의 기혼여성이 연구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발달주기나 사회계층이 다른 어머니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관심변인인 애착과 사회관계망은 전생애적 개념이기 때문에 횡단적 연구만으로 이들 변인의 안정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애착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애착양식이 관계망의 크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나 자원과 관련된 변인(예, 의사소통, 자기노출 등) 이외에 관계망에 영향을 받는 결과변인(예, 복지감,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성희·김주희(1996). 도시 기혼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159-187.
 강진경·최혜경(1996).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에서의 성차. *대한가정학회지* 34(4), 161-174.
 김경원(1988). 친족관계망 유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원효종(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유계숙·이은혜(1998). 성인의 애착양식과 관련변인

에 관한 연구: 전업주부의 내적 표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16.
 유은희·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 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149-162.
 유지영·김명자(1996).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51-165.
 이경미(199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탁아시설에 대한 요구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동원(1984). 도시 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 시가 및 친가와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논총* 44, 7-30.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학가정학회지* 35(3), 31-45.
 이은혜·이미리(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7(2), 61-78.
 전미경(1992). 도시 저소득층 부인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덕신(1993). 중년기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Ainsworth, M.(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 mother attachment. In B.M. Caldwell & H.N. Riciuti(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III*.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Alcalay, R.(1983). Health and social support networks: A case for improv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ocial Networks* 5, 71-88.
 Antonucci, T.C.(1991).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negative life events in mature adulthood. In E.M. Cummings, A.L. Greene, & K.H. Karraker(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Stress & Cop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ntonucci, T.C. & Akiyama, H.(1987). Social net-

- works in adult life and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convoy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2, 519-527.
- Antonucci, T.C. & Akiyama, H.(1991). Convoys of social support: Generational Issues. *Marriage and Family Review* 16(1/2), 103-123.
- Belle, D.(1982). Social ties and social support.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Chap. 10). Beverly Hills, Cal.: Sage.
- Cochran, M.(1993). Parenting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chran, M. & Brassard, J.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Collins, N.L., & Read, S.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avis, M.H. & Oathout, H.A.(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97-410.
- Farrell, M.P. & Rosenberg, S.D.(1981). *Men at Midlife*. Boston: Auburn House.
- Feeney, J.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ischer, C.(1982). *To Dwell Among Friends: Personal Networks In Town And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orge, C., Kaplan, N., & Main, M.(1984).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manuscript, Univ. of California, Berkeley.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ahn, R.L. & Antonucci, T.C.(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 Kobak, R.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evitt, M.J., Weber, R.A., & Clark, C.(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Levitt, M.J., Weber, R.A., & Guacci, N.(1986). Convoys of social support: An intergenerational 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8(3), 323-326.
- Oliveri, M.E. & Reiss, D.(1987). Social networks and family members: Distinctive roles of mothers and fathers. *Sex Roles* 17(11/12), 719-736.
- Shaver, P.R. & Hazan, C.(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73-501.
- Simpson, J.A.(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71-980.
- Wellman, B.(1981).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the study of support. In B.H. Gottlieb(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Chap. 7). Beverly Hills, Ca.: Sage.